

# 退溪先生 胎生風水 研究

- 朱子 高祖母墓와 比較分析을 通하여 -

金基駢\*

## 目 次

- I. 머리말
- II. 退溪先生의 先山과 胎室
  1. 退溪 李滉의 生涯와 學問
  2. 退溪先生의 先祖
  3. 退溪先生의 先山과 胎室
- III. 退溪先生의 胎生主墳·主宅
  1. 主墳·主宅에 관한 諸說
  2. 筆者의 見解 - 曾祖父母 李禎·安東金氏墓
- IV. 退溪 曾祖父母墓와 朱子 高祖母墓의 比較分析
  1. 朱子の 胎生風水
  2. 朱子の 高祖母 程氏墓
  3. 李禎墓와 程氏墓의 比較
- V. 맺음말

## I. 머리말

옛부터 동양에서는 地母思想이 전승되었다. 땅은 인간을 생산·보육하는 여성 즉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말이다. 또 ‘人傑은 地靈’이라고 했다. 큰 人物은 좋은 땅 즉 明堂의 精氣를 받아야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작은 人物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논두렁의 精氣라도 받아야 한다는

\* 영남대 환경설계학과 겸임교수, 대구한의대 객원교수

속설도 있다.

이처럼 우리들의 선조들은 人物形成에 미치는 風水地理의 영향을 굳게 믿어왔으며, 風水地理에서는 한 人間이 태어날 무렵에는 高祖나 曾祖 父母墓의 영향, 中壯年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祖父母墓의 영향, 부모가 돌아가신 후 5, 10년이 넘는 老年부터는 父母墓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 通說이다.

물론 陽宅도 태어날 때와 살고 있을 동안에는 한 人物의 形成에 꾸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릴 때 5, 10년 이상 살았던 좋은 집터의 영향은 한 사람의 일생동안 지속된다는 설도 있다. 하여간 한 人物에게 미치는 風水地理의 影響은 이처럼 여러 基의 祖上墓와 陽宅까지 합쳐서 複合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風水思想처럼 農耕文化를 기초로 한 東洋人의 自然觀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全一的 世界觀인데 반하여, 遊牧文化를 기초로 한 西洋人의 自然觀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二元論 및 人間中心主義로서 자연을 물질로만 인식하는 機械論的 世界觀이며, 과거 東洋式 傳統教育이 精神的·超經驗的·直觀的·綜合的·佛敎的인데 비하여 西洋式 現代教育이 物質的·經驗的·客觀的·分析的·基督敎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식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風水地理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감까지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그리스 신화에 가이아(Gaia)라는 ‘大地의 女神’이 있었으며 고대 로마인들도 ‘場所의 魂’(Genius Loci: the spirit of place)이 있다고 믿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1970년대에 발표된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의 ‘생명체로서의 지구(Gaia)’와 노베르크 슈츠(Norberg Schulz)의 ‘장소의 영혼’에서 동양의 풍수지리사상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며, 동양의 풍수지리가 오늘날 유럽과 미주에도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人間과 環境의 調和에 역점을 두는 環境理論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9월에 전국최초로 嶺南大學校 環境大學院에 風水地

理 專攻 碩士課程이 開設되어 2003년 후학기부터 風水地理 碩士學位論文이 나오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즈음에 ‘東方朱子’로 알려진 退溪先生(1501-1570)과 같은 偉大한 人物의 胎生風水를 특히 朱子(1130-1200)의 胎生的 根源이라고 中國 風水史에서 인정된 高祖母 程氏墓와 비교·분석해 보는 일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明堂과 偉人의 胎生關係를 규명해 본다는 견지에서 學問的으로도 價値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II. 退溪先生의 先山과 胎室

### 1. 退溪 李滉의 生涯와 學問

李滉은 禮安의 退溪에 자리잡고 살면서 시내 이름을 본 따 退溪라고 號하였다.<sup>1)</sup> 退溪 李滉에 대해서는 筆者가 부언할 必要가 없다. 다만 退溪先生 胎生風水 主墳에 대한 風水解說과의 聯關性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生涯의 年譜와 學問의 業績인 著述目錄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退溪先生 年譜

일반적으로 알려진 退溪 李滉의 年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1501년 1歲: 11월 25일(陰) 辰時 경상도 예안현(현 도산면) 온혜리에서 탄생. (연산군 7년)

1502년 2歲: 6월 부친 贊成公 李植께서 별세.

1512년(中宗 7년) 12歲: 숙부 松齋公 堧에게 論語를 배움.

1515년 15歲: 숙부를 모시고 淸涼山에 가서 독서.

1) 李珣, 「退溪先生 遺事」: (先生)卜居于禮安之退溪 因以自號(眞城李氏大宗會, 『悅話』 제16호, 1995 p.247)

2) 권영한, 『도산서원과 현판』, 도서출판 한빛, 1998 pp.118-121

- 1520년 20歲: 周易을 연구하시느라 거의 침식을 잊다시피 함. 이로부터 몸이 파리하고 피곤한 병이 있게 되었다.
- 1521년 21歲: 진사 許瓚의 따님 金海許氏를 아내로 맞이함.
- 1523년 23歲: 처음으로 태학(成均館)에 遊學. 장남 窩(僉正公)이 출생.
- 1527년 27歲: 10월에 차남 宋가 출생. 경상도 향시에서 進士 1등, 生員 2등에 합격. 11월에 許氏夫人이 별세.
- 1528년 28歲: 進士會試에 2등으로 합격.
- 1530년 30歲: 奉事 權頌의 따님을 부인으로 맞이함.
- 1532년 32歲: 文科初試에 2등으로 합격.
- 1533년 33歲: 成均館에 유학.
- 1534년 34歲: 文科에 及第. 4월 承文院 權知副正字. 藝文館 檢閱 兼 春秋館記事官. 12월에 務功郎으로 博士에 오름.
- 1537년 37歲: 4월에 宣教郎. 5월에 承訓郎. 9월에 承議郎. 10월에 모친 朴氏의 喪을 당함.
- 1539년 39歲: 弘文館 修撰 知製教 兼 經筵檢討官.
- 1540년 40歲: 정월에 司諫院 正言. 3월에 承文院 檢校. 9월에 弘文館 副敎理兼 經筵侍讀官. 11월에 通善郎.
- 1542년 42歲: 御史로 충청도 강원도 檢察. 5월 通德郎 承文院 校勘. 侍講院文學.
- 1545년 45歲: 典翰. 承文院 參校. 通訓大夫.
- 1546년 46歲: 7월에 부인 權氏 별세. 退溪의 東巖에 養眞巖을 지음. (명종 1년) 兎溪의 지명을 退溪로 고치고 自號로 삼음.
- 1547년 47歲: 7월에 安東府使에 除授되었으나 부임치 않음.
- 1548년 48歲: 1월 靑松을 원했으나 단양군수가 되고 10월 풍기군수로 옮김.
- 1549년 49歲: 12월에 紹修書院에 賜額과 서적을 下賜할 것을 청함.
- 1550년 50歲: 2월에 溪上의 西岸에 住居를 정함. 寒栖巖과 光影塘을 이룩함 (현 宗宅자리).

- 1552년 52歲: 7월에 成均館 大司成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임.
- 1553년 53歲: 4월에 다시 大司成에 임명. 10월에 秋巒 鄭之雲 天命圖說을 改訂.
- 1554년 54歲: 大寶箴을 써서 思政殿에 게시함.
- 1556년 56歲: 朱子書節要를 編次하고 序文을 지음. 12월에 鄉約을 草定.
- 1557년 57歲: 陶山書堂의 基地를 정하여 營建에 착수.
- 1558년 58歲: 12월에 御筆로 嘉善大夫 工曹參判을 除授.
- 1559년 59歲: 2월 휴가로 歸鄉하여 병으로 還朝 못하고 사표를 올렸으나 允許를 얻지 못함. 同知中樞府事로 傭김. 12월에 宋季元 命理學通錄이 始篇되다.
- 1560년 60歲: 11월에 奇高峯의 편지에 四端七情을 辯論. 陶山書堂이 낙성. 玩樂齋에 기거하며 연구와 사색. 제자교육에 힘씀.
- 1561년 61歲: 3월 節友社를 쌓음. 11월에 陶山記를 지음. 趙靜菴 선생의 行狀을 지음. 4월에 諸生과 함께 淸涼山에 遊山.
- 1565년 65歲: 8월에 諸生에게 啓蒙 강의, 特命으로 다시 同知中樞府事.
- 1566년 66歲: 工曹判書 兼 藝文提學을 除授했으나 병으로 上京 못하고 歸鄉. 10월에 晦齋 선생의 行狀을 짓고 그 문집 校正.
- 1567년 67歲: 7월에 明宗王의 行狀을 씀. 禮曹判書 兼 同知經筵春秋館事.
- 1568년 68歲: 右贊成, 判中樞府事, 兩館 大提學, 戊辰六條疏를 올림.
- (선조 1년) 12월에 聖學十圖를 올리니 왕은 嘉納하시고 병풍을 만들어 大內에 두게 하다.
- 1569년 69歲: 정월에 吏曹判書가 되었으나 병으로 固辭하고 歸鄉토록 간청하니 歸鄉만 허락하고 致仕는 允許치 않다.
- 1570년 70歲: 5월에 啓蒙 강의. 9월에 心經을 강의. 11월에 奇高峯의 格物致知說을 改訂. 12월에 선생께서 병드시어 長子(菡)에게 사직하고 올 것을 명하고 遺戒하시다(禮葬, 碑石, 銘文 등). 8일 酉時初에 앉으신 채 逝去.

- 1571년 3월 禮安의 芝山 南麓 子坐午向에 安葬하다.
- 1573년 伊山書院(榮州)에 位板을 奉安하고 釋菜禮를 奉行함.
- 1574년 陶山書院 창건. 翌年 乙亥年에 낙성과 함께 賜額.
- 1576년 文純公의 諡號를 내림(道德博聞曰 文, 中正精粹曰 純).
- 1610년(光海2년) 文廟에 配享.

2) 퇴계선생의 著述活動

퇴계선생은 陶山書院에서 약 20년간 隱居하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올렸다. 저술활동을 순차적으로 적어 보면 표 《1》「陶山 隱居時期 退溪의 著述目錄」과 같다.<sup>3)</sup>

표 《1》「陶山 隱居時期 退溪의 著述目錄」

작술 시기	저술 내용	작술 시기	저술 내용
53歲(癸丑)10월	天命圖說後敘	64歲(甲子) 4월	清涼山 遊山諸詩
54歲(甲寅) 7월	延平問答跋 與盧守愼論夙興夜寐箴 註解書	9월	心無體用辨 趙靜庵行狀
55歲(乙卯) 冬	清涼山 遊覽諸詩	66歲(丙寅) 10월	晦齋先生行狀 心經後論 陽明傳習錄辨
56歲(丙辰) 6월	朱子書節要		
57歲(丁巳) 7월	啓蒙傳疑		
58歲(戊午) 5월	自省錄序	68歲(戊辰) 8월	六條疏
59歲(乙未) 12월	宋季元明理學通錄 착수	12월	上聖學十圖并劄子
60歲(庚申) 11월	奇大升과 四端七情辨 시작	70歲(丙午)	四書釋義
61歲(辛酉) 11월	陶山雜詠並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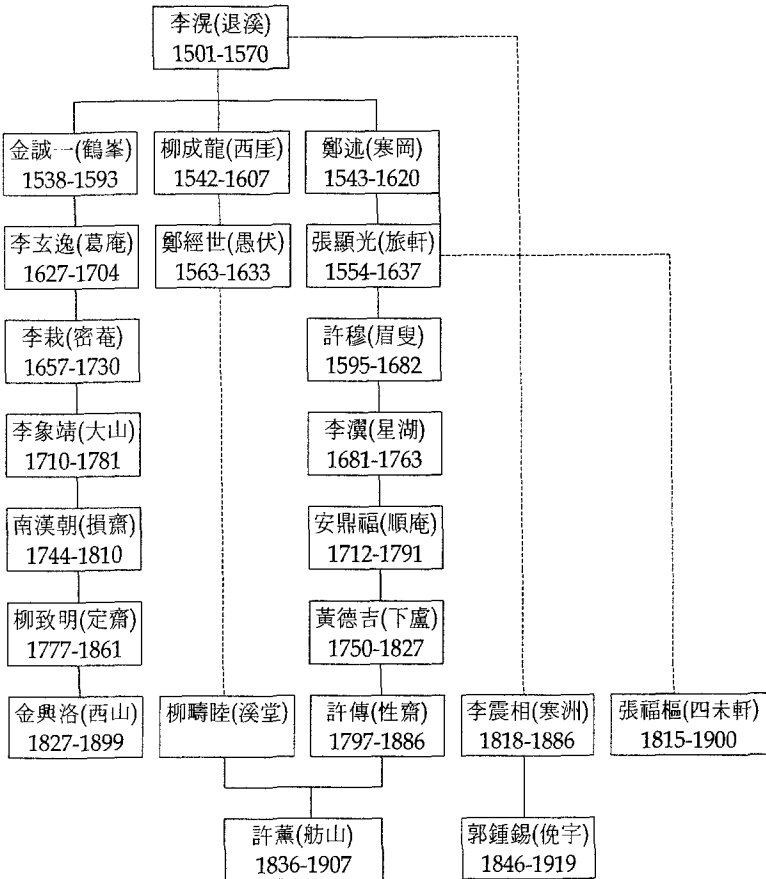
3)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2001 p.54

3) 퇴계선생의 弟子養成

퇴계선생은 70 평생에 수많은 弟子들을 양성하여 소위 退溪學派를 형성하였다. 退溪學派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림 《2》 「退溪學派 系譜圖」와 같다.<sup>4)</sup>

그림 《2》 「退溪學派 系譜圖」

—— 師承 ..... 私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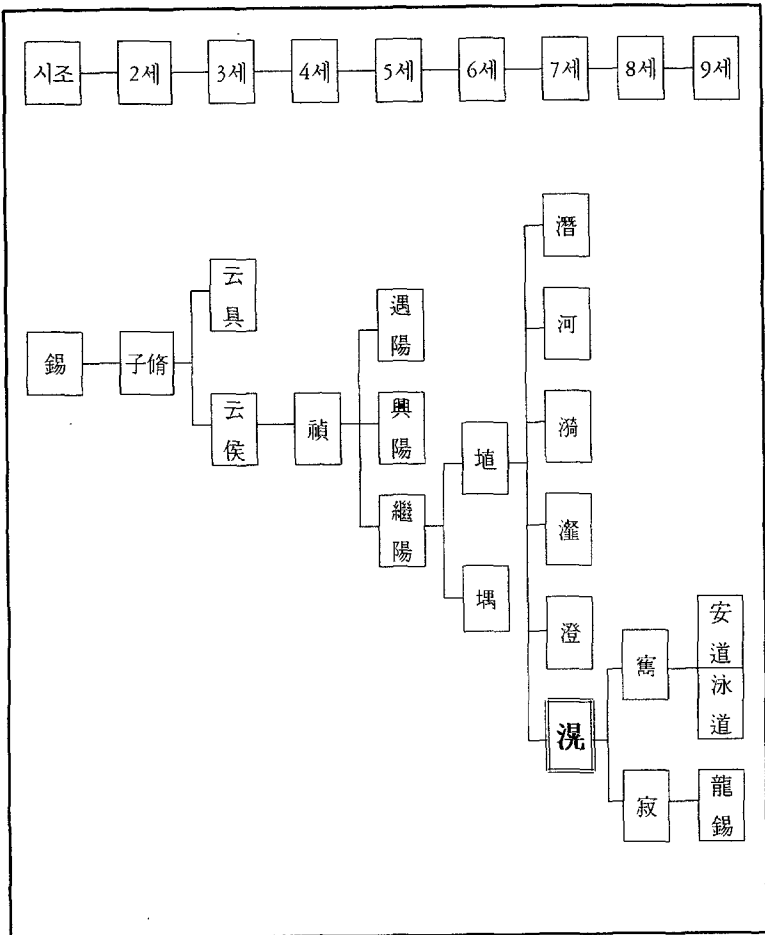


4) 이상은, 전거서 p.245

## 2. 退溪先生의 先祖

『眞城李氏 族譜』에서 退溪先生의 先祖를 찾아 退溪先生의 家系를 살펴보면 그림 《3》「退溪先生 家系譜」와 같다.

그림 《3》 「退溪先生 家系譜」





### 3. 退溪先生の 先山과 胎室

『眞城李氏 族譜』에 나타난 退溪先生 先祖 墓域과 退溪先生 胎室의 소재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始祖 諱碩(석) 墓所(癸坐), 配松生金氏·繼配姓氏모름 墓所(並同原)
  - 慶北 靑松郡 巴川面 新基洞(岐谷) 山7번지
- 2) 二世 松安君 諱子脩(자수)·配貞夫人 黃氏 墓所(子坐)
  - 慶北 安東市 西後面 鳴洞(兜率院) 山67번지
- 3) 三世(高祖父) 諱云侯(운후) 墓所(子坐)
  - 慶北 安東市 臥龍面 佳邱洞 加幕山 山98번지
  - 配淑夫人 安東權氏 墓所(子坐)
  - 慶北 安東市 北後面 道津洞(搜理洞) 山119번지
- 4) 四世(曾祖父) 諱禎(정)(壬坐), 配安東金氏 墓所(祔前壬坐)
  - 慶北 安東市 北後面 勿閑洞 鵲山 可倉山 山73번지
- 5) 五世(祖父) 老松亭 諱繼陽(계양)(子坐), 配英陽金氏 墓所(府君墓後壬坐)
  - 慶北 安東市 陶山面 溫惠里 樹谷
- 6) 六世(父) 諱埴(석)(癸坐), 繼配 春川朴氏 墓所(祔後子坐)
  - 慶北 安東市 陶山面 溫惠里 樹谷
- 7) 退溪先生 胎室(老松亭宗宅) 所在地
  - 慶北 安東市 陶山面 溫惠里

## Ⅲ. 退溪先生の 胎生主墳·主宅

### 1. 主墳·主宅에 관한 諸說

主墳 또는 主宅이란 한 사람의 出生 및 成長·活動에 결정적 影響을 미친 墳墓나 住宅을 말한다.

#### 1) 岐谷先山說

岐谷先山은 靑松郡 巴川面 新基洞(岐谷) 山7번지에 있으며, 사진

《4》「岐谷先山影」에서 보는 바와 같이, 眞城李氏 시조 諱碩, 配松生金氏, 繼配無姓氏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癸丑入首 癸坐丁向에 丙午破이다. 墓峰을 외형상으로 보면 艮坐에 가깝다. 그러나 族譜에는 癸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사진 <<4>> 「岐谷先山影」



이 先山은 특히 주산의 御屏砂가 좋고 외청룡과 백호가 御屏砂에서 바로 뺨어 내렸는데, 白虎가 길게 뺨어 案山이 되었다. 얼른 보기에는 좋은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선산을 보는 분들은 이 山所 때문에 退溪先生과 같은 큰 인물이 배출되었다고들 하기도 한다.

그러나 來龍脈이 좁고 약하고 혈장이 좁으며 點穴도 정확하게 되지 못하여 墓封墳에 일부 지자기 교란(geomagnetic disturbance) 현상이 나타나고 局勢가 작아서 큰 인물을 배출하기(퇴계선생 태생풍수 主墳으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御屏風의 주산에서 혈장까지 屈曲과 起伏을 되풀이하면서 여러 節數를 내려왔기 때문에 7세손인 퇴계선생의 朝廷活

動에는 다소의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樹谷先山說

수곡선산은, 사진 《5》 「樹谷先山影」에 나타난 바와 같이, 安東市 陶山面 溫惠里 樹谷에 있다. 樹谷이란 “숲이 많기 때문에 명명한 것이다”<sup>5)</sup>라고 한다. 樹谷先山에는 퇴계선생 조부 휘繼陽(자좌 병오과), 조모 英陽金氏(府君慕後壬坐) 묘소가 있다. 그 아래에 부친인 휘埴(계좌)과 모친인 춘천박씨(附後子坐)의 묘소도 있다.

사진 《5》 「樹谷先山影」



먼저 退溪先生의 태생풍수의 主墳이 樹谷先山(祖父母와 父母墓)이라는 설의 근원은 朝鮮總督府 발행의 『朝鮮의 風水』라고 본다. “경상북도 안동군 陶山面 溫惠洞 龍頭山은 東方朱子로 불리는 李退溪先生의 先祖墳墓의 땅으로서 有名하다”<sup>6)</sup>고 기록되어 있다.

5) 李滉, 「樹谷庵記」; 樹谷以樹而名谷也(眞城李氏大宗會, 『悅話』제16호, 1995 p.129)

6) 朝鮮總督府, 『朝鮮의 風水』, 1931 p.546

다음은 근자의 풍수연구가 哲山이라는 분이 『地理正氣』라는 저서에서 “安東에 있는 退溪先生의 父祖山이 聖賢君子·大文大賢이 날 수 있는 大穴場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龍頭山에서 내리 뺀 주산은 탐랑성을 이루고 巳方과 未方의 一字文星을 비롯한 주위의 砂格도 수려하고, 일반적으로 조부모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퇴계선생도 祖父母 산소와 父母 산소의 영향을 다소간 받았겠으나, 穴場도 넓고 크지는 못하고 부모묘는 點穴도 바르지 못하며 龍虎도 有情하게 감싸안지는 못하였고 明堂局이 작고 비뚤어졌으므로 이 곳을 퇴계선생의 태생풍수 主墳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 3) 老松亭宗宅(胎室)說

“퇴계선생은 1501년(연산군 7 辛酉) 음력 11월 25일 예안군 은계리(현 도산면 은혜동) 지금의 老松亭 종택(胎室 癸坐)에서 태어나셨다.

선생의 선조는 진보현에 살았는데 5대조 松安君이 왜구를 피하여 풍산 현 마애리로 이사하여 살다가 뒤에 또 周村으로 옮겨고 조부 판서공 때에 이르러 산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은계리로 옮겨서 살았다.

선생이 태어나신 胎室은 그의 조부가 지었으나 50년 전에 두 번째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正門은 그의 先妣 정경부인 朴氏가 태몽에서 孔子님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후에 선생을 낳았기 때문에 이 문을 聖인이 들어온 문이라 하여 聖臨門이라 한다.”<sup>8)</sup>

이러한 사실을 듣고 아는 분들의 상당수는 胎室이 명당이라 퇴계선생 같은 大儒學者가 태어나셨다고들 한다.

7) 哲山, 『地理正氣』, 청운문화사, 1997 pp.57-58

8) 안동군수, 『내고장 전통가꾸기』, 1985 P.48

사진 《6》 「老松亭宗宅(胎室)影」(退溪胎室癸坐)



사진 《6》 「老松亭宗宅(胎室)影」에 나타난 바와 같이, 老松亭宗宅(胎室)은 뒤쪽의 乾方에 주산인 三角峰의 大貴人이 있고 좌측의 乙方, 앞쪽의 未方, 오른쪽의 酉方에는 一字文星이 環抱하고 있으며 시냇물도 腰帶를 이루고 明堂局勢도 바르고 넓으며 터도 비교적 좋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곳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퇴계선생의 肖像畵를 볼 때 양택보다는 음택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생각이 들며 曾祖父 山所가 胎室보다 더 좋아서 이 곳을 主宅으로 선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4) 外家宅說

퇴계선생의 태생풍수 主宅이 咸昌에 있는 外家라는 설은 집터가 좋고 外祖父가 厚德하여 異姓後孫에게 福祿이 내렸다는 조선 중기의 民間傳說에 근거한다.

“이 집터는 매우 좋은 집터이지만, 생원님(퇴계 외조부)과 같은 姓氏

여인이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어 있는 집터입니다. 그러니 뜰에 草堂을 하나 지어 깨끗하게 꾸미고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두었다가, 同姓女인이 해산하게 될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십시오. 훌륭한 아들이 출생할 것입니다.

(중략) 그런 뒤에 노인의 딸, 곧 李退溪의 모친이 임신하여 해산을 하려고 친정으로 왔다. 진통이 시작되면서 몸이 아파 못 견디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중략) 초당 방에 들어갔더니 그렇게도 아프던 진통이 안정되면서 쉽게 해산을 했는데, 보니까 옥동자가 출생했다. 그 아이가 곧 退溪 李滉이었다.”<sup>9)</sup>

퇴계선생께서 老松亭 중택의 胎室에서 태어나지 않고 咸昌의 外家宅에서 태어났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또 咸昌에 있다는 퇴계선생의 外家を 볼 수가 없어 필자는 外家宅說에 대하여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 2. 筆者의 見解 - 曾祖父母 李禎·安東金氏墓(鵲山先山)

### 1) 鵲山先山の 主墳選定理由

먼저 증조부 李禎墓는 安東市 北後面 勿閑洞 鵲山 可倉山 山73번지에 있는 鵲山先山에 있다. 墓의 좌측 前面에 서 있는 碑石에는 「贈嘉善大夫 戶曹參判任中直大夫善山都護府使眞城李公之墓 贈貞夫人永嘉金氏之墓下墓」라고 적혀 있다. 증조모 安東(永嘉)金氏 묘 또한 증조부 산소 바로 밑(墓前)에 있으나 穴場이 보다 넓다. 따라서 便宜上 以下 ‘曾祖父母墓’를 ‘李禎墓’라고 稱하기로 하겠다. 鵲山精舍 입구 안내문은, 사진 《7》 「眞城李氏鵲山精舍入口影」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安東에서 영주 가는 國道の 오른 쪽에 세워진 큰 돌에 ‘眞城李氏鵲山精舍入口’라고 새겨 놓았다.

9) 김현룡, 『한국인 이야기』, 자유문화사, 2001, pp.252-255

사진<7> 「眞城李氏鵲山精舍入口影」



鵲山과 可倉의 이름에 대한 유래는 “물한동 남쪽 고개 너머 1.5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옛날에 농토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하여 可倉이라고 불렀는데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可倉리가 까체이로 변해서 까치 鵲字를 써서 까체이라고 부른다”<sup>10)</sup>고 한다.

필자가 퇴계선생의 증조부 李禎內外墓를 퇴계선생의 태생풍수 主墳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 慶尙北道教育廳, 『慶尙北道地名由來總覽』, 1984 p.250

이곳의 李禎墓는 첫째, 선비를 상징하는 ‘鶴’字가 들어간 一字文星形의 鶴駕山을 태조산으로 하고 주산인 乾知山 역시 선비를 상징하는 筆峰을 이루고 있다.

둘째, 형국도 仙人讀書形이며 사방이 선비를 상징하는 一字文星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개인의 인격과 역량을 상징하는 明堂局도 調和롭고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특히 풍부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원만·부후한 頭腦部分을 가지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천에서는 曾祖父母의 산소가 胎生風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태어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퇴계선생의 경우에는 “태어난 지 겨우 반년에 부친을 여의고”<sup>11)</sup> 가신 대부 호조참판을 지낸 숙부 堦(우) 밑에서 자라났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眞城李氏 族譜』상에는 生沒年代의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당연히 曾祖父와 祖父도 퇴계선생이 태어나기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본다.

다섯째, 수많은 靑龍·白虎와 未·坤方の 重疊한 朝山은 또한 높은 관직에 올라 무수한 부하 관료를 거느리게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太祖山의 명칭인 鶴駕山 역시 ‘선비(鶴)가 ‘수레(駕)에 타고 말을 부리면 退溪先生처럼 ‘벼슬한 선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壬坐丙向이란坐를 쌍산오행으로 보면 水가 되는데 퇴계선생의 생년(辛酉)은 納音五行으로 볼 때 (石榴)木이 되어 水生木의相生으로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水口 丁未方이 좌향과 符合하며 물길이 太極形의 彎環屈曲으로 흐르고 있으며 水口가 交鎖로 잘 닫혀 있어 큰 인물을 낼 수 있는 明堂이기 때문이다.

11) 趙穆撰, 「退溪先生言行總錄」; 盖先生生纔半歲失其所怙(眞城李氏大宗會, 『悅話』제 16호, 1995 p.253)



여덟째, 鳴洞의 2세 松安君(子坐 병오과) 내외산소와 佳邱洞 가매기 3세(高祖父) 云侯(子坐 병오과) 산소, 道津洞 3세비 安東權氏 산소(子坐)들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高祖父 산소가 正穴에 入葬되고 朝山도 秀麗하여 제일 나왔지만 主山이 높지 못하고 明堂局勢가 狹小하여 鶴山先山の 曾祖父母 산소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2) 鶴山先山 李禎墓의 風水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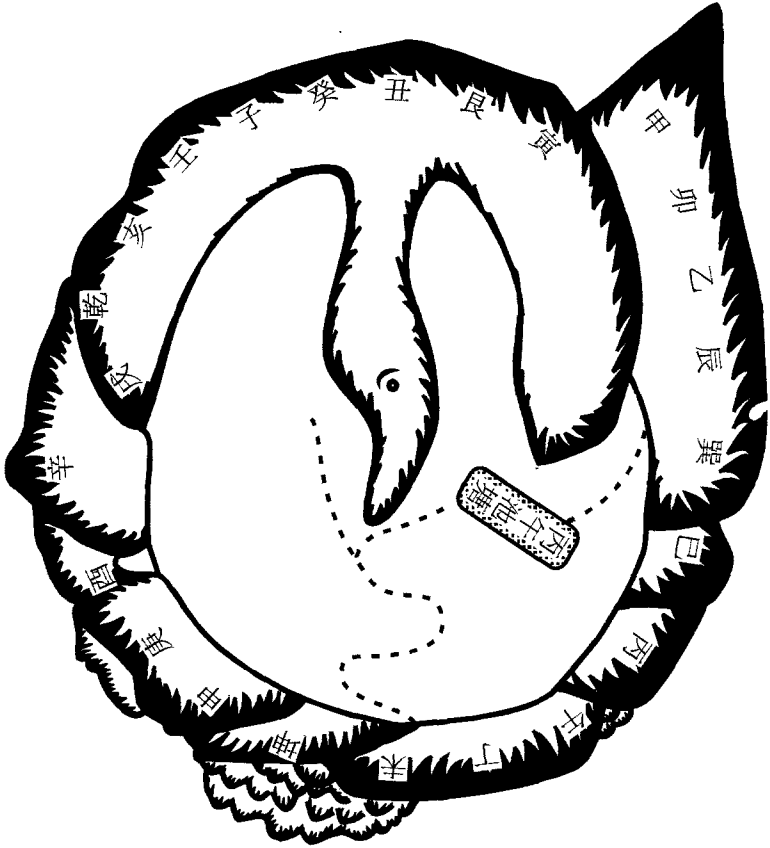
중조부 李禎墓 앞에서 보면, 그림 《8》「李禎墓風水圖」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형의 調和로운 明堂局勢를 이루고 있다. 보이는 것은 內明堂 뿐이지만 中明堂과 外明堂은 보이지 않고 暗拱으로 숨어 있다. 風水圖에 나타난 24 方位表示는 주위 諸砂의 위치를 人盤中針으로 측정해본 것이다.

太祖山은 鶴駕山(882m, 西方 暗拱)으로 하고 중조산인 天燈山(575.5)을 거쳐 다시 回龍하여 甲方(火)에 落脈한 少祖山은 筆峰山 모양의 乾知山(278.5m)이다.

乾知山은 다시 巽巳로 中出脈하여 過峽을 이루면서 甲卯로 行龍하여 艮方(木)에 一字文星을 이루고 다시 艮寅, 癸丑으로 落脈하여 到頭 穴에 이른다. 그 밑에 壬坐丙向의 李禎墓(癸丑直入首)가 지자기 균일화(geomagnetic homogenization)가 이루어지는 乳穴에 入葬되어 있다. 증조모 安東金氏墓는 바로 아래 穴場이 더 넓은 곳에 있다.

特記할 사항은 曾祖父墓 뒤에 연결된 金星形의 頭腦部位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乾知山과 같이 그 형태가 뾰족한 火星山이 少祖山으로 된 경우에는 극히 건조하여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까닭에 가까이에서는 穴을 댈 수 없지만, 過峽을 거치면서 여러 節數가 屈曲과 起伏을 되풀이 하면 結穴이 될 수 있다.

그림 <<8>> 「李禎墓 風水圖」



한편 甲方의 乾知山에서 外靑龍과 外白虎가 뺏어나갔는데 外靑龍은 길게 뺏어 一字文星의 案山을 이루었으며, 艮方의 一字文星에서 內靑龍과 內白虎가 뺏어나갔다.

內靑龍의 끝 巽巳方에서 得水하여 丙午方에 연못을 만들고 水太極을 이루면서 丁未方에서 水口(破)가 되어 보이지 않는 中·外明堂에서도 九曲으로 흘러 나간다. 內靑龍, 內白虎가 4, 5개나 되고 暗拱의 外靑龍, 外

白虎가 각각 열 개가 넘는다.

穴에서 四方을 둘러보면 보이는 것은 온통 一字文星뿐이다. 전술한 甲方의 筆峰 主山과 辛方의 筆峰이 보이고 未·坤方의 朝山이 天馬砂를 포함한 여러 砂들로 疊疊이 겹쳐 있는 모습이 멀리 보일 뿐이다. 약간 低陷한 곳은 巳, 午, 庚, 申, 亥, 寅방이다. 그러나 午方은 朝山이, 庚方에는 외백호로 天馬砂가 막아주고 있다.

굳이 形局을 붙인다면 天燈山의 밝은 등불 아래서 책을 읽는 仙人讀書形이라고나 할까. 調和와 均衡, 局勢의 크기 등에서 外見上 이만한 明堂局은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 3) 鶴山先山 李禎墓의 風水解說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一字文星의 鶴駕山에서 낙맥하여 사진 《9》 「李禎墓主山影」에 나타난 바와 같이, 回龍하여 文筆峰의 乾知山이 主山이 되었으며 文을 상징하는 外靑龍이 길게 뻗어 一字文星의 案山이 되었다는 사실이 퇴계선생과 같은 大儒學者를 배출할 수 있는 可能性을 暗示하고 있다.

사진《9》 「李禎墓主山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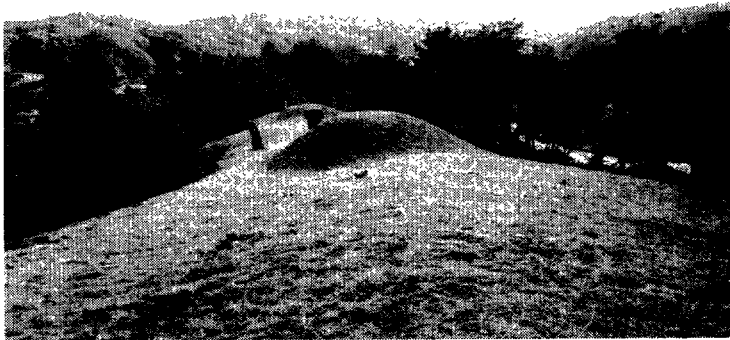


鶴駕山이란 ‘孤高한 선비(鶴)’가 ‘수레(駕)’에 타고 말을 부린다는 뜻이니 퇴계선생처럼 ‘벼슬한 선비’를 상징한다. 天燈山은 선비가 책을 읽기 위해 필요한 ‘등불’을 뜻한다. 답산시 만난 한 마을주민의 해설에 따르면, 乾知山이란 일명 乾空山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에 뜬 산’이란 뜻으로 하늘 같이 높은 인물을 배출한다는 꿈을 담았다고 했다.

『人子須知』에 나타난 「一字文星」의 해설을 보면, 上格貴砂로서 神童·壯元·宰相·侯伯의 貴를 주관한다고 했다.<sup>12)</sup> 그리고 「文筆峰」에 대해서는 中格貴砂로서 文章·科第·顯貴·名譽를 주재한다고 했다.<sup>13)</sup>

그런데 이와 같은 文筆峰은 甲方과 辛方 두 곳에 있으나 一字文星은 한 두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진 <10> 「李禎墓前方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자 그 대로 一字文星으로 重重包裹 즉 온통 사방, 팔방에 겹겹이 들렸으며 龍虎 또한 보이는 것이 4, 5개요 보이지 않는 暗拱의 龍虎가 각각 10여 개씩이 넘는 大(內·中·外)明堂局을 형성하였으니, 퇴계선생과 같은 大儒學者 겸 高官이 배출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사진<10> 「李禎墓前方影」



12) 徐善繼·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5 p.311

13) 徐善繼·徐善述, 前揭書 p.314

일반적으로 풍수에서 靑龍은 文·長子·官貴·本孫을 가르키나 白虎는 武·次子(女子)·財産·外孫을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龍虎(靑龍과 白虎)가 많은 만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계선생의 兄弟가 6명, 諱禎의 증손이 모두 13명이나 되었으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생의 著述活動도 왕성하였고, 그림 《2》에서 보듯이, 弟子들도 많아서 소위 退溪學派를 형성하였다.

또한 庚方과 (午·)未·坤方の 上格貴砂인 「天馬砂」에 대한, 『玉髓眞經』의 해설을 보면, “宰執五府之地, 出將入相之象”이라 하였는데<sup>14)</sup> 五府를 관장하는 宰相의 벼슬을 배출한다는 뜻이다. 숙부 堦의 벼슬이 이미 參判(從二品)에 이르렀다. 그리고 선생께서는 判書, 知事, 右贊成, 大提學(正二品), 中樞府 判事(從一品) 등을 지냈고 ‘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領議政(正一品)으로 追贈되었다.

특히 甲方 主山인 筆峰의 모양이 火星인데 長方 一字文星의 土星으로 내려와 혈장 뒤 金星形의 頭腦部位로 直入하여 火-土-金의 五行相生의 生龍을 이루고 있으며 壬坐인 水로 연결되어 다시 火-土-金-水로 四星連珠格이 되고 있음은 강한 生氣를 계속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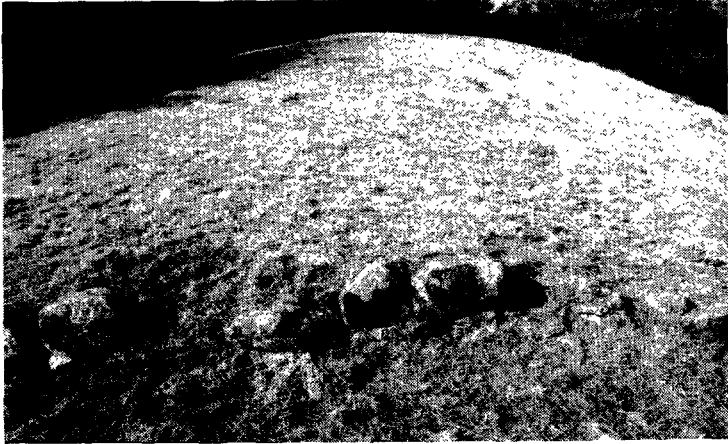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사진 《11》 「李禎墓頭腦部分影」에 나타난 바와 같이, 金星形의 頭腦部位가 圓滿·富厚하여 퇴계선생께서 풍부한 思想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창안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壬坐丙向의 李禎內外墓가 지자기 균일화(geomagnetic homogenization)가 이루어지는 乳穴에 入葬되어 있어 그러한 氣運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이제 人盤中針으로 주위 諸砂들의 方位를 측정하여 宿度五行을 확인하고 坐向의 五行과 生剋關係로 消砂法을 밝힘으로써 해당 후손들에게 미치게 되는 吉凶禍福을 알아보기로 하자.

宿度五行으로 乾坤艮巽은 木이요, 甲庚丙壬과 子午卯酉는 火요, 乙辛丁癸는 土요, 辰戌丑未는 金이요, 寅申巳亥는 水가 된다.

14) 張子微, 『玉髓眞經』上冊,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p.199

사진 <11> 「李禎墓頭腦部分影」



甲方의 筆峰과 庚方의 天馬 旺砂는 재산과 자식을 얻게 하고, 辛方의 筆峰 洩砂는 소극적일 경우에는 재산과 자식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하나, 퇴계선생처럼 “나이가 아직 십 세 미만에 讀書를 즐겼으며 비록 父師가 있어 힘써 근면치 아니하여도 날마다 삼가 정한 과정을 외우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sup>15)</sup>고 한다면, 이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文章과 功名을 드날린다고 했다.

그 외에도 乾·坤·艮·巽方의 生砂는 학자적인 자질과 官貴를 높여 주었으며, 辰·戌·丑·未方의 奴砂는 財祿과 奴僕을 얻게 하였다.

辛方의 文筆峰에 이어 巽方의 一字文星峰은 어쩌면 天乙太乙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催官篇』에 이르기를 “天乙 太乙의 文筆峰이 솟으면 壯元及第를 한다”<sup>16)</sup>고 했다. 즉 장원급제를 할 만큼 文筆에 能한 賢士가 배출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앞의 年譜에 나타나 있듯이, 先生께서는 科

15) 趙穆撰, 「退溪先生言行總錄」(진성이씨대중회, 『悅話』제16호, 1995 p.253)

16) 賴文俊, 「催官篇」; 天乙太乙文筆起曜氣交騰壯元位 天乙辛也太乙巽也 文筆如木星 尖星之類也.(顧陵岡·徐試可, 『地理天機會元』,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5 p.406)

試를 볼 때마다 늘 1, 2등을 하셨다.

천만다행으로 寅·申·巳·亥方의 煞砂는 모두 低陷하여 凶禍를 받지 않고 人敗가 되지 않았음은 天佑神助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과 싸움의 와중에서도 퇴계선생은 당시 高官들에게는 그리도 혼했던 귀양을 한 차례도 가지 않았음은, 물론 당신께서 進退의 처신을 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風水地理上으로는 이처럼 煞砂方이 저함하여 힘을 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선생께서는) 벼슬에 나아가기만 하면 곧 물러나기를 빌었고 이미 물러나 와서는 곧 致仕(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할 것을 빌어 진정도 하고 혹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탄핵도 하면서 어느 해라고 그렇게 아니한 때가 없었는데 만년에 와서는 벼슬을 사양하는 예규에 따라 세 번이나 箋을 올려서 致仕할 것을 간절히 빌었으나 允許를 얻지 못하였다”<sup>17)</sup>고 한다. 이것은 선생께서 벼슬에 큰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위에서 선생을 그냥 놔두지 않을 정도로 인품이 孤高하고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 壬坐丙向 丁未破에 入首龍이 癸丑으로 들어왔는데 이를 理氣法上의 胞胎法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림 《12》「壬坐丙向丁未破胞胎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sup>18)</sup> 癸丑入首龍이 冠帶龍에 해당되기 때문에 “聰明的 子孫이 出生하여 7세에 詩文을 짓고 博士가 輩出되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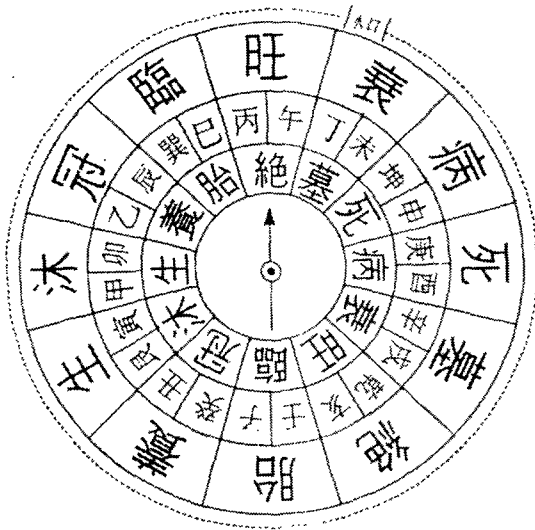
胞胎法은 胞(絶)·胎·養·長生·沐浴·冠帶·臨官·帝旺·衰·病·死·墓의 12 단계로 人生이나 事物의 榮枯盛衰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生(龍)·旺(向)·墓(破)가 가장 좋다. 入首龍이나 得水가 長生·冠帶·臨官·帝旺이 되면 아주 좋고 病·死·絶은 아주 나쁘고 沐浴·衰·墓·胎·養은 半凶半吉이다. 胞胎圖에서 안의 12 단계는 入首龍을 확인하는 것으로 右旋이고 밖의 12 단계는 得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左旋이다.

17) 趙穆撰, 前掲錄 (진성이씨대종회, 『悅話』 제16호, 1995 p.260)

18) 김기선, 『風水實務便覽』, 형설출판사, 2002 p.222

19) 김기선, 『풍수지리학개론』, 형설출판사, 2001 p.176

그림 <12> 「壬山丙向丁未破胞胎圖」



그리고 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內靑龍의 끝 巽巳方에서 得水하여 丙午方에 연못을 만들고 彎環屈曲으로 水太極을 이루면서 丁未方에서 水口(破)가 되어 보이지 않는 中·外明堂에서도 九曲으로 흘러 나간다.

壬坐丙向에 丁未破는 楊公의 救貧進神水法에 해당되며, 山水向向發微로 보아도 “富貴高壽旺丁 男聰女秀 大吉”이다.<sup>20)</sup> 더욱 바람직한 사항은 水口가 交鎖로 꼭 닫혀있으니 사람과 財物이 모여들고 明堂이 제 힘을發揮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어서 壬坐丙向 丁未破에 巽巳方의 得水를 풀이해 본다면, 그림 <12> 「壬坐丙向丁未破胞胎圖」에 나타난 바와 같이 臨官水에 해당하므로, “靑雲의 꿈을 이뤄 賢明한 宰相이 되었다.”<sup>21)</sup>

20) 김기선, 『風水地理學概論』, 형설출판사, 2001 p.257  
 21) 김기선, 『風水地理學概論』, 형설출판사, 2001 p.176



당시에도 丙午의 旺方에 연못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물은 富와 貴를 상징하므로 당시에도 그곳에 연못이 있었다면 錦上添花가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雪心賦』에 이르기를 “九曲水가 明堂에 들면 當朝에 宰相이 난다.”<sup>22)</sup>고 하는 데 비록 나가는 물이지만 水太極으로 흘러 나가거나 暗拱의 九曲水라도 曾孫의 宰相을 배출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明堂局은 交鎖明堂으로 아름다우며 비교적 넓고 둥글고 편편하여 퇴계선생이 “顯貴하여”<sup>23)</sup> 광범위하고 원만하게 活動하는 근원이 되었다. 또한, 사진 《13》 「中明堂에서 본 暗拱朝山影」에서 보는 바와 같이, 九曲水 뿐만 아니라 鶴駕山을 비롯한 暗拱의 朝山들도 참으로 秀麗하다. 그러므로 穴場에서 보이지 않는 暗拱의 外靑龍·外白虎, 中·外明堂의 朝山들을 포함하는 경우, 李禎墓의 전체적인 山圖는 그림 《14》 「理想的인 風水地形모델」<sup>24)</sup>에 근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明堂吉地이다.

사진《13》 「中明堂에서 본 暗拱朝山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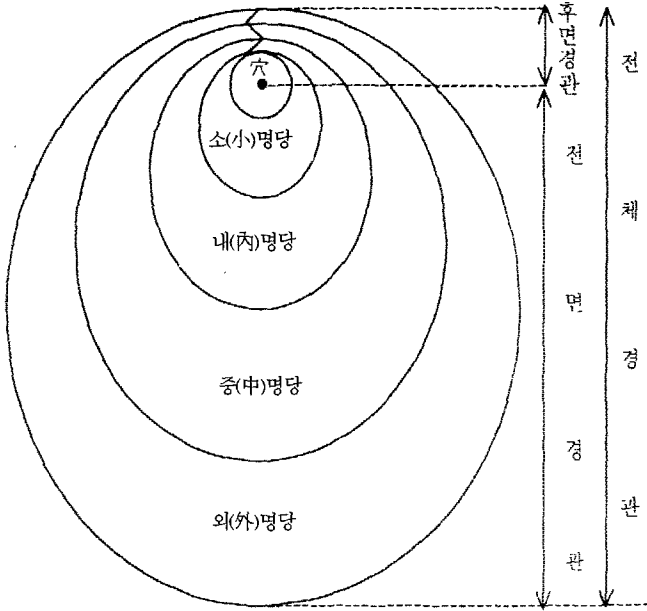


22) 卜應天, 『雪心賦』; 九曲入明堂常朝宰相 (顧陵岡·徐試可, 『地理天機會元』,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5 p.53)

23) 徐善繼·徐善述, 前掲書, p.353; 交鎖明堂極吉主巨富顯貴.

24) 김기선, 『風水發蔭試論』, p.252(慶山大國學研究院, 『國學論叢』第6輯, 2001 pp.205-260)

그림 <14> 「이상적인 風水地形 모델」



蛇足이 될지 모르겠으나, 形局이 天燈山의 밝은 등불 아래서 책을 읽는 仙人讀書形이라서 「退溪先生言行總錄」에 나타나 있듯이, 종일 주야로 어릴 때부터 70 평생에 四書三經과 朱子全書를 비롯하여 글이란 글은 아니 읽는 것이 없을 정도로 讀書하고 探究하고 思索하여 經學에 博通하고 性理學에 通達하여 仙道の 境地에 이르러 “東方朱子”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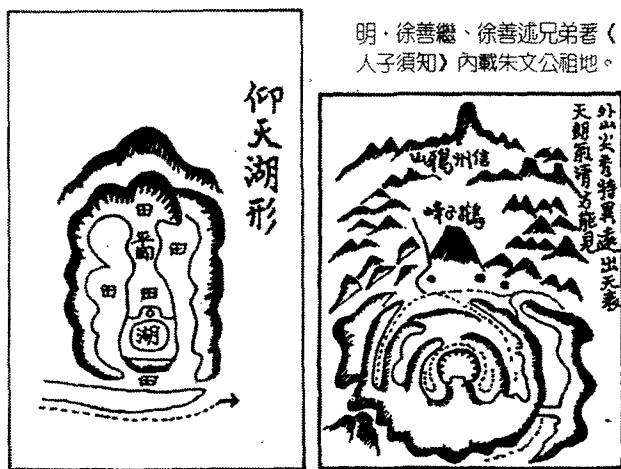
그렇다고 증조부 李禎公의 山所가 長點만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첫째 主山인 筆峰山이 明堂의 局勢에 비하여 낮고 작다(低小). 둘째, 來龍脈이 狹弱하다. 셋째, 穴場이 좁고 작다(狹小). 필자의 욕심 같아서는 內靑龍 末尾의 韓國莫(국명)공 묘소 바로 뒤쪽이나 증조부 李禎墓의 약간 뒤쪽 두뇌부분에 點穴하였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IV. 退溪 曾祖父母墓와 朱子 高祖母墓의 比較分析

##### 1. 朱子の 胎生風水

宋나라 朱子の 胎生風水에 대한 이야기는 中國 風水書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明나라 徐善繼·徐善述 형제가 지은 『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에 수록된 高祖母 程氏夫人墓와 어머니 祝氏夫人墓이다. 程氏墓는 安徽(江西)省 婺源縣 二十七都地名 官坑嶺에 위치하고 있으며 祝氏墓는 福建省 建陽縣 崇泰里 寒泉嶺 天湖 北쪽(陽)에 있다<sup>25)</sup>고 한다. 그림 《15》「朱子高祖母程氏·母祝氏夫人墓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sup>26)</sup>, 어머니 墓도 得水藏風의 美地이지만 高祖母墓는 孔子와 같은 賢人을 배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림《15》「朱子高祖母程氏·母祝氏夫人墓圖」



25) 鐘義明, 『中國堪輿名人小傳記』,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p.97

26) 鐘義明, 前掲書, p.97

이러한 사실은 高祖母墓로 인하여 孔子와 같은 賢人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宋國師 吳景鸞이 門人 洪士良과 함께 처음 朱子의 高祖母 程氏夫人 묘터를 찾았을 때의 감탄사와 葬時의 課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樂平의 洪士良이 스승인 吳景鸞과 같이 官坑嶺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샘물을 찾아 물을 마시고 달려와 스승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샘이 심히奇异하므로 貴地가 있을 것 같다’ 하였다. 吳國師가 가서 샘을 찾아 물맛을 본 후 ‘이 샘에 翰墨의 향이 가득하므로 어찌 貴뿐이겠는가 마땅히 大賢이 날 것이다’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과연 그 혈이 보이는지라 감탄하여 말하길 ‘배어난 地氣가 여기에 모여 朱氏 묘터로 드는구나’ (中略) ‘마땅히 夫子가 나오리라.’”<sup>27)</sup>

“우리 형제(徐善繼·徐善述)가 朱氏의 家譜를 보니 (중략) 下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官坑龍은 勢가 特異하고 穴場은 산의 높은 곳에 있으며 여러 산들이 모였고 남북(坎離)의 산맥들이 조화롭게 모여들어(交媾하여) 明堂局을 이루며 文筆峰이 멀리 하늘 높이 솟았으니 富는 陶朱에 미치지 못하고 貴는 五府를 넘지 못할 것이나 한 사람의 賢人이 나와 聰明함이 孔子와 같으리라.”<sup>28)</sup>

한편 소위 발복의 시기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穴은 높고 물은 멀어 初代에는 不利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야 賢人이 배출된다고 하였다.

“산 아래로부터 혈에 이르기까지 약 7리 정도나 되어 산줄기 끝에서 흐르는 계곡 물은 오른쪽 石檢에서 나와서 앞으로 흐르는 물은 五店으로 직류하

27) 徐善繼·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5 p.107; 樂平洪士良同師吳景鸞至官坑嶺下士良偶渴探泉飲之走謂師曰此泉甚異當有至貴之地國師亦往索泉嘗之曰是泉有翰墨香豈但貴也當產大賢因至山巔觀之果見其穴呀曰秀鍾於此以報朱氏然(中略)當出夫子.

28) 徐善繼·徐善述, 前揭書 pp.106-107; 子兄弟巽在朱氏觀文公家譜云(中略)末下之前有記云官坑龍勢異穴高衆山聚坎離交媾精筆峰天外起富不及陶朱貴不過五府當出一賢人聰明如孔子.

며, 穴場은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하는 데다 물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初代에  
는 不利하므로 壙中을 파서 마무리할 때에 큰 바위로 눌러서 덮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후에 과연 不利하여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바위 때문에 그쳤다고  
한다.”<sup>29)</sup>

## 2. 朱子의 高祖母 程氏墓

『人子須知』에 나타난 朱子의 高祖母 程氏夫人墓의 山圖는 그림 《16》  
「朱子高祖母程氏夫人墓圖」에 나타난 바와 같다.<sup>30)</sup>

그림《16》 「朱子高祖母程氏夫人墓圖」



29) 徐善繼·徐善述, 前掲書 p.107; 自山下至穴所約七里許而透龍兩水右出石檢(土名)前水直流五店(土名)穴高水遠不利初代窆窆畢用巨石壓而封之後果以不利欲遷焉竟得石壓而止.

30) 徐善繼·徐善述, 前掲書 p.106

이어서 『人子須知』에 나타난 山圖의 해설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朱子の 高祖母 程氏夫人墓는 正幹이 멀리 멀리에서 뻗어 내려왔으며 사람의 머리부분에 해당되는 뒷산에 이르러 雲錦帳이 옆으로 벌려있고 帳의 꼭대기에 작은 雙峰이 일어났으며 두 峰 아래에 각각 가느다란 脈이 隱隱隆隆하게 數節이 이어지고 走馬와 蛾眉文星이 帳身에 붙어있으며 약한 기운이 넓게 퍼지면서 습하였으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고 얼른 보면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 俗眼으로는 보기 어렵다.

入首에 束氣結咽하고 다시 갑자기 土星을 일으켜 開窩한 格이니 모양이 아주 빼어나고 窩 사이에 微乳가 있으며 穴이 乳頭에 붙어 있고 그 아래는 평탄하여 바람은 감춰지고 氣는 모여 穴情은 完固하고 탐스러운데 양쪽 옆은 拱衛羅列하니 만길(萬仞)의 산꼭대기인 줄을 알지 못하겠다.

元辰水가 비록 혈 바로 앞에서 三千餘步 비스듬히 달아나나 龍虎가 한 차례 막아주고 가까운 案山이 옆으로 막아주니 水口가 좁고 交鎖되어 물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물길이 迂廻·曲折하여害가 되지는 않으나 단지 후손들은 故鄉을 떠나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朱文公이 建陽에 이사하였으니 그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鵝子峰이 案山이 되는데 鵝子峰도 秀麗하고 外陽에 또 특이한 奇峰이 있어 멀리 하늘 높이 솟아 雲漢에 들어 있으니 穴에 오르면 勢가 불꽃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 맑고 奇異하여 사랑스럽다. 또한 水星이 북에 帳幕을 치고 火星은 南에 솟아 있고 東木西金이 土星을 夾照하여 穴은 中央 土星에 맺히니 이른바 五星歸垣格의 참으로 至貴한 땅이로다.

그러나 俗眼으로 보면 龍身이 三十餘里를 분주히 뻗어나가다 이 사이에서 멈추기 시작하여 橫落하고 약한 기운이 넓게 퍼져 數節의 脈이 내려오다 結穴되어 산꼭대기의 높은 곳에서 明堂도 없고 물 또한 멀리 빠져나가는 곳에 大地가 될 줄 누가 알겠는가?”<sup>31)</sup>

31) 徐善繼·徐善述, 前掲書 p.107; 按此地正幹迢迢甚遠不能悉述比人首橫列雲錦帳帳之巔微起雙峰峰下各出微脈隱隱隆隆數節走馬蛾眉文星貼在帳身微茫合氣細察則有粗看則無非俗眼所能檢求入首束氣結咽復頓起土星開窩之格形體甚秀窩間又有微乳穴粘乳頭坐下平坦藏風聚氣穴情完固可愛兩旁拱夾羅列莫知爲萬仞山巔元辰水雖當前傾跌三千餘步得本身一攬近案橫攔緊巧有力不見水去且迂廻曲折亦不爲害但主離鄉而已故文公遷居建陽乃其驗也近有鵝子峰作案已自秀異而外陽又有特異奇峰遠在天表聳入雲漢登穴觀之勢如焰動清奇可愛且水星帳北火星朝南東木西金夾照土星結

묘를 쓸 무렵 宋國師 吳景鸞은 課記에 다음과 같이 적으면서 “마땅히 부자가 나오리라”(當出夫子)고 예언을 하였다.

“다리미 같은 穴이 들보에 맞혔는데,(金斗穴居梁)  
 朝案은 信州의 鴉山 사이에 있으며,(朝案信鴉間)  
 溪谷과 山이 九曲으로 둘러 있으니,(溪山環九曲)  
 道學의 香氣가 세상을 가득 채우리.(道學世流芳)”<sup>32)</sup>

1,059년 이곳에 朱子의 高祖母 程氏夫人墓를 쓰고 70년 후인 1,130년에 朱子가 태어나 이처럼 課記에 符合하니, 徐善繼·徐善述 형제의 말처럼, 누가 風水地理를 否定할 수 있겠는가?

### 3. 李禎墓와 程氏墓의 比較

退溪先生(1501-1570)의 출생이 朱子(1130-1200)의 世代와의 차이가 거의 400년이나 되고 살고 있는 地處의 거리가 萬리나 되는데도,<sup>33)</sup> 두 분은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다고 본다. 퇴계선생은 70세를 사셨는데 朱子도 71세를 사셨다.

退溪先生은 曾祖父母 李禎·安東金氏墓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朱子는 高祖母 程氏夫人墓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韓國의 山川規模와 中國의 山川地勢 規模를 감안한다면 退溪와 朱子라는 큰 人物의 曾祖父母·高祖母라는 世代間的 거리는 適當하다고 본다.

일찍이 朝鮮 선조 때 中國에서 귀화한 풍수사 杜師忠은 『東國地理要

穴居中謂之五星守垣眞至貴之地也然以俗眼觀之龍身奔去三十餘里始盡而此間以橫落微茫數節之脈結穴高在山巔無明堂而水又流去甚遠孰識爲此等大地

32) 徐善繼·徐善述, 前掲書 p.106

33) 趙穆撰, 「退溪先生言行總錄」; 先生之生 上距朱子之世 幾乎四百年 地之相距 亦幾乎萬餘里. (眞城李氏大宗會, 『悅話』제16호, 1995 p.252)

訣』의 「山水氣總論」에서 “우리나라 山水는 中國과 같지 않다. 山水가 秀麗하여 文明이 有餘하나 圖局이 좁아 수백 리 넓이의 平原이 없고 수십 리 흐르는 平流水가 없어 人才는 있어도 局量이 크지 못하다. 그런데 砂法은 中國과 다른 점이 없다”<sup>34)</sup>고 했다.

한 사람의 큰 人物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明堂에 山所를 모신 後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人物이 나온다고 하며, 退溪先生과 朱子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早婚이라고 볼 때 큰 人物의 胎生風水에 미치는 영향은 祖父母보다는 曾祖父母가 더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제 李禎墓와 程氏墓를 風水地理의인 側面에서 比較해보기로 하자.

첫째, 大儒學者(文章·科第·顯貴·名譽)를 상징하는 커다란 文筆峰이 李禎墓에는 主山이 되었으나 程氏墓에서는 案山(鵝子峰)과 朝山(信州鵝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풍수에서 穴이 氣運을 받음에 있어 位置上으로는 主山이 더 좋지만 穴 자리의 性格을 端的으로 나타내는 案山과 朝山도 穴 자리가 힘이 있으면 무방하다. 李禎墓의 主山 文筆峰이 좀 弱한듯 하나 太祖山인 鶴駕山과 龍虎 및 案山의 一字文星이 補完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大文筆峯이 主山 또는 案山이나 朝山이 되어 大文章家들을 배출시킨 例들은 中國의 詩聖 李太白 祖墳(黃龍引子飲海形, 御屏少祖, 海水爲案)의 朝山 海外峯이 대표적이며<sup>35)</sup>, 우리 주변에도 여럿 있다. 文筆峯이 主山으로 되어 있는 곳은 포항시 기계면 미현3리 杞溪俞氏 始祖 新羅阿飡俞公(三宰)之墓이며, 文筆峯이 主山과 案山으로 되어 있는 곳은 경주시 강동면 良佐洞에 晦齋 李彥迪(1491-1553)선생이 慶尙監司로 있을 때 中宗이 지어졌다는 驪州李氏宗宅이다.

文筆峯이 案山으로 있는 경우는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에 위치한 주실 마을이다. 주실 마을에서는 마을 앞 큰 文筆峯(홍림산)을 갈미봉 또

34) 杜師忠, 『東國地理要訣』; 我東山水與中州不同山秀水麗文明則有餘而圖局狹隘野無數百里平原水無數十里平流故人才無局量我東砂之法與中州無異.

35) 張子微, 前揭書上冊, p.126(有山圖)



는 노적봉이라고도 하는데 文筆家를 내고 貧寒을 면해 준다고 믿고 있다.<sup>36)</sup> 실제로 당대 文名을 날린 心齋 趙彦儒(1767-1847), 「志操論」으로 유명한 趙芝薰(1920-1968), 한국 人文學의 대표적 3인방이라는 趙東一 교수, 趙東杰 교수, 趙東元 교수 등이 모두 이 마을 출신이다. 조그마한 마을에 박사가 14명이나 나왔다 한다.<sup>37)</sup>

文筆峯이 朝山으로 있는 경우는 대구시 수성구 성동 163번지에 있는 孤山書堂의 醮禮峯이다. 초례봉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 왕과 싸우려고 오동나무 숲에 이르러 부하들과 함께 초례산에 올라가 필승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거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sup>38)</sup> 고산서당은 조선 명종때 尹希濂이 鄉儒들과 서재의 齋號를 退溪先生에게 청하니 齋는 孤山으로 門은 求道라는 手筆을 받았는데 求道 편액은 지금도 남아 있다.<sup>39)</sup>

둘째, 坐向은 兩墓 共히 壬坐丙向이다.

셋째, 兩墓 共히 龍虎는 一字文星이다.

넷째, 兩墓 共히 重重包裹하여 調和로운 明堂局을 만들었다.

다섯째, 兩墓 共히 물이 九曲으로 흘러나간다.(程氏墓 처음은 元辰水)

여섯째, 兩墓 共히 穴 뒤쪽의 頭腦部位가 豊富하다.

以上에서 共通點을 추출해 보았으나 兩墓의 相異點을 對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李禎墓는 낮은 곳에 위치하나 程氏墓는 높은 곳에 있다.

둘째, 李禎墓는 直龍結穴이나 程氏墓는 橫龍結穴이다.

셋째, 李禎墓는 來龍이 弱하나 程氏墓는 來龍이 强하다.

넷째, 李禎墓는 乳穴이나 程氏墓는 窩穴이다.

다섯째, 李禎墓는 仙人讀書形(신선이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이나 程氏

36) 安東大 安東文化研究所, 『영양 주실 마을』, 예문서원, 2001 pp.28-29

37) 조용헌,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2 p.22-23

38) 大邱市教育廳, 『우리 고장 大邱 地名由來』, 1988 pp.127-128

39) 大邱中區文化院, 『大邱의 樓亭錄』, 1996 p.250

墓는 金斗穴梁上形(손잡이가 달린 다리미형)이다.

여섯째, 李禎墓는 內明堂局이 相對的으로 작지만 程氏墓는 外明堂局이 크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들은 退溪先生의 胎生風水 主墳이 曾祖父母 李禎·安東 金氏墓이며, 이 墓는 一字文星의 鶴駕山(882m)에서 落脈하여 天燈山(575.5m)을 거쳐 乾知山(278.5m)에 이르러 回龍하여 文筆峰의 主山으로 자리잡고 仙人讀書形의 大明堂局을 만들어 退溪先生같은 大儒學者를 誕生시키고 成長·活動하는 데에도 決定的인 作用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退溪先生과 같은 큰 선비나 大儒學者를 배출하는 데에는 鶴駕山과 같은 名산의 힘을 받은 文筆峰이나 一字文星이 主山이나 案山으로 짜여진 調和로운 明堂局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퇴계선생의 五代祖 諱子脩는 고려말 흥건적을 토벌할 때 훌륭한 공을 세워 松安君에 봉안되었고, 曾祖父 諱禎은 世宗朝에 寧邊府 判官에 선임되어 都節制使 崔潤德을 따라 毛隣衛를 정벌하여 原從功勳에 책록되었으며 韓山·善山府使로서 善政을 베풀었고, 祖父 諱繼陽은 端宗 癸酉年 나이 十三에 司馬(進士生員)에 합격하였으나 端宗이 禪位하자 訓導職을 그만두고 禮安山谷으로 들어가 뜰 앞에 老松을 한 그루 심어놓고 해마다 10월 24일 단종이 승하한 날에는 國望峯에 올라 절하며 生六臣처럼 逸民으로서 숨은 忠節을 지켰다. 이처럼 선생의 先祖들께서도 國家와 民族을 위한 功德을 여러 代에 걸쳐 쌓았기 때문에 退溪先生과 같은 훌륭한 後孫을 배출하게 되었다.

朱子의 高祖母 程氏墓와 比較해 볼 때, 主山 또는 朝案의 文筆峰과 龍虎案의 一字文星, 豊富한 頭腦部分과 彎環屈曲의 九曲水, 重重包裹 속에

서의 調和로운 明堂局이 작용하고 있다는 共通點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들은 일일이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朱子나 退溪先生의 例에서 보듯이, 偉大한 人物의 背後에는 合當한 明堂이 있었음을 確認하였다는 事實은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본다.

臺灣의 南懷瑾 선생은 運命을 바꾸는 방법으로 첫째는 積德이요, 둘째는 命理를 洞察하는 것이요, 셋째는 風水요, 넷째는 多讀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風水地理는, 『葬經』의 말을 빌려, “신의 공을 빼앗을 수 있고(奪神功) 운명을 바꿀 수 있다(改天命)”고 한다. 즉 風水는 타고난 四柱八字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明堂은 얻고 싶다고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부터 明堂은 三代를 積善하여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서애 柳成龍 선생의 8대조 柳蘭玉公이 큰 길가에 觀稼亭을 지어 6대조 柳從惠公에 이르기까지 3대를 나그네들에게 무시로 積善을 베풀어 三南의 四大吉地 중에서 제일간다는 河回터를 얻었다고 전한다.

讀書를 하는 것도 重要하고 德을 쌓는 일도 重要하다. 그러나 틈틈이 山川을 찾아 心身을 鍊磨하고 좋은 明堂을 구하는 일 또한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心身의 健康을 위해서도, 運命을 改善하기 위해서도 必要하다. 뿐만 아니라, 偉大한 後孫을 배출하면 道義昂揚과 文化暢達을 통하여 國家社會의 發展과 繁榮에도 寄與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교육청, 『慶尙北道地名由來總覽』, 1984  
 권영한, 『陶山書院과 懸板』, 도서출판 한빛, 1998  
 김기선, 『風水實務便覽』, 형설출판사, 2002  
 김기선, 『風水地理學概論』, 형설출판사, 2001

- 김기선, 『風水發蔭試論』(慶山大 國學研究院 『國學論叢』제6집, 2001 pp.205-260)
- 김동규역, 『人子須知』, 명문당, 1999
- 김두규, 『우리 땅 우리 風水』, 동학사, 1998
- 김현룡, 『韓國人 이야기』, 자유문학사, 2001
- 대구시교육청, 『우리 고장 大邱 地名由來』, 1988
- 杜師忠, 『東國地理要訣』, 慕明齋刊行, 辛亥(1611)仲秋節
- 안동군수, 『내 고장 傳統 가꾸기』, 1985
-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영양 주실 마을』, 예문서원, 2001
- 이덕일, 『黨爭으로 보는 朝鮮歷史』, 출판사 석필, 2002
- 이상은, 『退溪의 生涯와 學問』, 예문서원, 2001
- 조용헌, 『名門家 이야기』, 푸른역사, 2002
- 진성이씨대종회, 『悅話』 제16호, 1995
- 진성이씨(대)종회, 『眞城李氏 各派族譜』
- 철산, 『地理正氣』, 청운문화사, 1997
- 최길성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朝鮮總督府, 1931
- 南懷瑾 지음·신원봉 옮김, 『주역강의』, 문예출판사, 2000
- 顧陵岡·徐試可, 『地理天機會元』,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5
- 徐善繼·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5
- 張子微, 『玉髓眞經』 上冊,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 鐘義明, 『中國堪輿名人小傳記』,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 Sara Noble, 『Feng Shui in Singapore』, Graham Brash Singapore, 1994
- Sara Rossbach, 『Feng Shui』, Penguin Books USA Inc., New York, 1983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Feng Shui(風水) on what made  
Toegye(退溪) be born

Kim, Key-sun

From ancient times, Korean and Chinese felt they shared a fate with the earth. They saw a magical link between man and the landscape. So they used feng shui(風水) as a way of linking man's destiny with that of nature by placing graves and residences at auspicious spots, to tap the earth's chi(地氣), where the chi flows smoothly and yin and yang(陰陽) are in harmony, making a productive cycle of the five elements(五行).

Nature imitates life. Life imitates nature. Feng shui, as a language of symbols,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silent dialogue between man and nature. The environment takes on a metaphorical quality. They believed that unless the deceased were properly buried, the descendants would suffer. The offspring of an ancestor with an exceptionally good grave on the basis of accumulated virtuous deeds(積善) for generations, it is believed, will be rewarded with wealth, health, lots of sons, longevity, and even a high position. Besides its offspring, even the fate of a nation depends, it is said, on the correct location of the ruler's residence and the correct burial of his ancestors.

According to The Form School(形勢學派), the mountain shapes & configurations(山形) can influence the deceased's descendants, while The Compass School(理氣學派) focuses on the orientation(方位).

Man is thus affected by yin and yang dwellings(陰陽宅) - the houses of the dead and the places of the living. I assumed, it would be much more truthful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case of a distinguished scholar like Toegye.

Therefore,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eng shui on the residence where Toegye(退溪), known as a Korean Chu Hsi(東方朱子), was born and the tomb sites of his ancestors to reveal which one of those influenced him most strongly to be born a great scholar,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Chu Hsi(朱熹), a respected neo-Confucian Chinese scholar.

The writer visited to find Toegye's great-grand parent's graves(曾祖父母墓), buried on the correct spots where one can find no geomagnetic disturbance phenomena(地磁氣攪亂現象), backed by a mountain shaped like a calligraphy brush(文筆峰) as the high black tortoise mountain(玄武, 主山) and flanked by & facing many surrounding mountains, in many folds, shaped like the horizontal line(一字文星) implying a successful scholar, making a big round bright yard(大明堂) in the center with views of a front pond and a zigzagged, meandering flow of water, which, I am sure, spurred his scholarly success.

In case of Chu Hsi, his great-great-grand mother's grave(高祖母墓), surrounded by various mountains in many folds, especially faced two high mountains shaped like a big calligraphy brush(大文筆峰) soared high in the sky as the lower & higher vermilion birds(朱雀, 朝案), making a bigger wide outer bright yard, which, it is said, actualized him to become a famous neo-Confucian scholar.

Finally, we analyzed that very distinguished scholars like Toegye &

Chu Hsi were born due to the exceptionally good graves of their ancestors, buried correctly on the most comfortable spots where one can find geomagnetic homogenization effect(地磁氣 均一化 效果), backed or faced by the mountains shaped like a big calligraphy brush comprising a successful scholar in terms of feng shui.

Feng shui tells us that locating the correct & auspicious spo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virtuous deeds, plays a decisive role in casting the destiny of the occupants(residences), its descendants(graves) and even a nation(residence of the ruler & graves of his ancestors, city's shapes & public planning). Let's improve and harmonize the environment for one's better life, a prosperous nation and a peaceful world!

**Keyword**

Toegye(退溪) & Chu Hsi(朱熹), feng shui(風水), the earth's chi(地氣), yin and yang dwellings(陰陽宅), house & tomb sites, residence(住宅) & grave(墓地), shapes & configurations, orientation, a mountain shaped like a calligraphy brush(文筆峰) comprising a successful scholar in terms of feng shu, mountains shaped like the horizontal line(一字文星) also impling a successful scholar, geomagnetic disturbance phenomena(地磁氣 攪亂現象) geomagnetic homogenization effect(地磁氣 均一化 效果), accumulating virtuous deeds(積善), Locating the correct & auspicious spot a plays decisive role in casting man's destiny to become a distinguished person.

## 退溪先生 胎生風水 研究

- 朱子 高祖母墓와 比較分析을 通하여 -

金基駢

우리들은 흔히 ‘人傑은 地靈’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오랜 세월 風水地理 工夫를 하면서 필자는 有名人士의 先祖 山所에는 반드시 明堂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筆者는 ‘東方의 朱子’라고 불리고 있는 退溪 李滉先生(1501-1570)처럼 大儒學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나 風水界에 잘 알려져 있는 眞城李氏 始祖산소, 퇴계선생 胎室, 그 옆의 祖父母와 父母山所 등을 보았으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나머지 祖上 산소인 鳴洞의 2세 松安君(자좌 병오파) 내외산소와 佳邱洞 가매기 3세(高祖父) 云侯(자좌 병오파) 산소, 道津洞 3세비 安東權氏 산소(자좌) 와 鶴山先山의 증조부모 李禎墓와 安東金氏墓(임좌)들을 찾았다.

새로 방문한 산소들 모두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高祖父 산소가 正穴에 入葬되고 朝山도 秀麗하여 상당히 좋았지만 主山이 높지 못하고 明堂局勢가 狹小하여 鶴山先山의 曾祖父母 산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曾祖父母 산소를 찾은 순간, ‘바로 이 山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였다. 主山이 文筆峯이요, 사방에 온통 一字文星이 들렸으니 큰 學者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그 유명한 鶴駕山을 太祖山으로 하고 있으니, 퇴계선생과 같은 大儒學者 겸 高官이 나오는 자리가 될 것이 아닌가?



退溪先生과 같은 큰 선비나 大儒學者를 배출하는 데에는 鶴駕山과 같은 名山の 힘을 받은 文筆峰이나 一字文星이 主山이나 案山으로 짜여진 調和로운 明堂局이 필요하다고 본다.

風水工夫를 깊이 하려면 中國의 古代典籍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明나라 徐善繼·徐善述 형제가 지은 『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이란 책에 朱子(1130-1200)는 高祖母 程氏夫人墓가 좋아서 태어났다고 했다. 그래서 두 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程氏夫人墓는 일찍이 宋의 국사인 吳景鸞이 點穴하면서 課記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孔子와 같은 聖인이 나오리라(當出一賢人聰明如孔子)”고 예언을 하고 事實로 판명된 묘로도 유명하다.

穴場은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하는 데다 물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初代에는 不利하므로 壙中을 파서 마무리할 때에 큰 바위로 눌러서 덮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후에 과연 不利하여 이장하려고 하였으나 바위 때문에 그쳤다고 한다. 1,059년 그 곳에 朱子の 高祖母 程氏夫人墓를 쓰고 70년 후인 1,130년에 朱子가 태어나 이처럼 課記에 符合하니, 徐善繼·徐善述 형제의 말처럼, 누가 風水地理를 否定할 수 있겠는가?

이제 퇴계선생의 曾祖父母墓(李禎墓)와 程氏夫人墓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첫째, 大儒學者(文章·科第·顯貴·名譽)를 상징하는 커다란 文筆峰이 李禎墓에는 主山이 되었으나 程氏墓에서는 案山(鵝子峰)과 朝山(信州鵝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풍수에서 穴이 氣運을 받음에 있어 位置上으로는 主山이 더 좋지만 穴 자리의 性格을 端的으로 나타내는 案山과 朝山도 穴 자리가 힘이 있으면 무방하다. 李禎墓의 主山 文筆峰이 좀 弱한듯 하나 太祖山인 鶴駕山과 龍虎 및 案山의 一字文星이 補完해 주고 있다.

둘째, 坐向은 兩墓 共히 壬坐丙向이다.

셋째, 兩墓 共히 龍虎는 一字文星이다.

넷째, 兩墓 共히 重重包裹하여 調和로운 明堂局을 만들었다.

다섯째, 兩墓 共히 물이 九曲으로 흘러나간다.(程氏墓 처음은 元辰水)  
 여섯째, 兩墓 共히 穴 뒤쪽의 頭腦部位가 豊富하다.

以上에서 共通點을 추출해 보았으나 兩墓의 相異點을 對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李禎墓는 낮은 곳에 위치하나 程氏墓는 높은 곳에 있다.

둘째, 李禎墓는 直龍結穴이나 程氏墓는 橫龍結穴이다.

셋째, 李禎墓는 來龍이 弱하나 程氏墓는 來龍이 强하다.

넷째, 李禎墓는 乳穴이나 程氏墓는 窩穴이다.

다섯째, 李禎墓는 仙人讀書形(신선이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이나 程氏墓는 金斗穴梁上形(손잡이가 달린 다리미형)이다.

여섯째, 李禎墓는 內明堂局이 相對的으로 작지만 程氏墓는 外明堂局이 크다.

退溪先生의 曾祖父母 李禎內外墓와 朱子의 高祖母 程氏墓와 比較해 볼 때, 主山 또는 朝案의 文筆峰과 龍虎案의 一字文星, 豊富한 頭腦部分과 彎環屈曲의 九曲水, 重重包裹 속에서의 調和로운 明堂局이 작용하고 있다는 共通點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들은 일일이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朱子나 退溪先生의 例에서 보듯이, 偉大한 人物의 背後에는 合當한 明堂이 있었음을 確認하였다는 事實은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본다.

積善을 많이 베풀어서, 明堂에 살거나 先祖를 明堂에 모시면, 心身도 健康하고 運命을 改善할 수 있다. 그리고 偉大한 後孫을 배출하면 道義 昂揚과 文化暢達을 통하여 國家社會의 發展과 繁榮에도 寄與할 수 있다.

주제어

退溪 李滉, 胎生風水, 人傑 地靈, 大儒學者, 曾祖父母 李禎內外墓, 鶴鷲山, 乾知山, 文筆峯, 一字文星, 仙人讀書形, 朱子, 高祖母 程氏夫人墓, 金斗穴梁上形, 明堂, 積善, 運命改善, 國家社會 寄與